

#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 재탄생

### 1년간 전시공간 재구성·환경개선 김남주 등 지역 출신 4인 전시실 재개관 이후 단체 관람객 줄이어

“새단장한 문학관에서 문학테라피하세요.”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이 전시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땅끝순례문학관은 해남읍 연동마을 고산유적지 인근에 있는 1484㎡ 규모의 공립문학관으로 해남군이 직영하고 있다. 문학관은 1년여 동안 전시공간 재구성 및 환경개선, 신규 전시물 제작·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지난 1일 새롭게 개관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한옥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내부공간은 완전히 새롭게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문학관 로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목빛의 외부 조경을 그대로 옮긴 듯 편안하고 세련된 식물 인테리어와 톱톡 튀는 색감의 디자인 가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로비에는 해남 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실을 별도로 구성해 전시 관람 전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어지는 전시공간은 곡선형 진입로를 지나 해남 대표 시인 4인의 특색을 살린 전시실로 연결된다. 대표적인 해남 출신 현대시인 이동주, 박성룡, 김남주, 고정희 시인의 전시실은 각각 개별 공간으로 구성돼 관람객이 선택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리모델링을 마친 전시관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전시실 관람을 마치면 해남의 자연과 시문학을 실감형 콘텐츠로 조성한 ‘문학테라피’와 해남 문인 및 문학명소를 검색할 수 있는 ‘문학 아카이브’ 체험도 가능하다.

또 전시실별로 스텝을 찍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스탬프 순례’는 방문객들에게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재개관 이후 학교와 단체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문학 전문 도슨트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다채로운 문학 체험이 가능하다.

땅끝순례문학관은 연중 활발한 인문교육 및 창

의적인 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 문학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 보장을 통해 해남 시문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인근 고산유적지와 연계한 문학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시문학의 고장인 해남의 품격을 높이는 대표 문학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교육, 체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24일~8월 4일 전국 중별 농구선수권대회

영광군이 오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나은행 제 80회 전국 남녀 중별 농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로 80회를 맞이한 중별 농구선수권대회는 스포터움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흥농초·중학교 실내체육관 5개소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농구협회와 전라남도농구협회, 영광군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한다. 남녀 초·중·고·대학부와 여자 실업부 등 10개 부에 걸쳐 전국 150개 팀, 30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한다.

대회 일정은 부별 예선을 거쳐 결선, 8강전, 준결승,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고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경기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KBA Live’를 통해 경기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으며 영광군민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은 경기장에 방문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하계 방학 시즌을 맞아 8월 5일부터 하계 전국 초등부 축구리그를, 8월 15일부터는 전국 초등학생 테니스 대회를 연다. 이와함께 8월 23일부터는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 대회 등 다채로운 중목대회를 연이어 개최 방문객을 유치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 무안 회산백련지 순백 인취사백련 만개

### 다채로운 여름꽃 이달말 절정

“꽃망울 터진 순백 연꽃 감상하러 무안 회산백련지로 오세요.”

6월 말 펼쳐진 ‘제28회 무안연꽃축제’의 무대였던 10만여 평 규모의 무안군 일로읍 복흥리 회산백련지에 백련이 만개했다. <사진>

회산백련지 백련은 도입종인 ‘인취사백련’과 자생종인 ‘무안백련’으로 구분되며, 이 중 조생종인 인취사백련은 현재 만개한 상태다.

무안백련도 개화를 시작해 이달 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련 외에도 수련, 가시연꽃 등 30여 종의 연꽃과 함께 피튜니아, 산파첸스, 백일홍 등 다채로운 여름꽃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기간 큰 반응을 얻은 태권V, 아이언맨 등 20여 종의 진주 유동 캐릭터는 7월 말까지 전시되며, LED 장미와 경관 조명과 함께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회산백련지는 오감만족형 복합 관광지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대표 관광명소가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 19일부터 4주간 5가지 체험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관람객을 위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도자기 체험은 오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되며 현장 방문 순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총 다섯 가지로 물레 체험, 빚어 만들기, 핸드 페인팅, 시계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8000원에서 1만 2000원이며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 정시(오전 10시·오전 11시·오후 1시·오후 2

시·오후 3시·오후 4시)에 체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가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촬영된 사진은 체험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된다. 참여자가 만든 작품은 약 4주간의 자연 건조 및 가마 소성을 거쳐 도자기로 완성되며 완성된 작품은 박물관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누리집(<http://doja.mokpo.go.kr>) 또는 전화(061-270-84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도자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관계자들이 흑산면 전복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해 전복 상태 점검하고 어업인들과 함께 양식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고수온 주의보’ 양식장 예찰 강화

신안군이 고수온 주의보 발효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안군 임자도 북단에서 효지도 북단까지 ‘고수온 주의보’, 흑산도 해역에는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보름 정도 빠른 상황으로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온이 25도 도달하면 예비특보, 28도까지는 주의보, 28도가 3일 이상 지속하면 경보 단계가 발령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폭염이 지속할 경우 연안과 내만을 중심으로 고수온 주의보 확대와 경보 단계로 상향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신안군은 권역별, 읍면별 수산업무 담당자 대응반을 구성해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면역증상제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 개장

진도군이 여름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19일 개장한다.

임회면 남동리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야외 물놀이장에는 유아용(수심 0.5m) 1개소, 아동용(수심 0.8m) 1개소 등 총 2개의 물놀이장과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과 해변용 의

자(비치체어) 등의 휴식공간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28일간 무료 개방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진도군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장 안전 표지판 설치,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연락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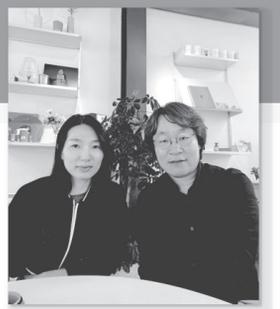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